

2018 · 06



암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는

#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호주호스피스협회

(Kor) [www.sydneyhospice.com.au](http://www.sydneyhospice.com.au)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mailto: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Eng) [www.australianhospice.com.au](http://www.australianhospice.com.au)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DHL,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May 7 2018)(위)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어버이날 축하) - Woy Woy (May 5 2018) (아래)



##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11:24~25) One man gives freely, yet gains even more; another withholds unduly, but comes to poverty. A generous man will prosper; he who refreshes others will himself be refreshed.(Proverbs 11:24~25)

월간 • 통권 10호  
(Vol. NO. 10)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자와 그의 제할을 돕는

##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8

06

C · O · N · T · E · N · T · S

### 02 웃음치료와 페르조나 (Persona)

### 06 ACC 호스피스 활동

### 07 회계 자료

#### 표지 사진설명



지난 5월 7일 개최된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머니 날 특별행사로 Baptist Care에서 가졌다. 특히 104세이신 Alf 목사님께서 함께하셨다 (표지사진 우측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 그는 지난 2월 21일 소원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래함(Billy Graham)목사의 친구로서 60년 이상을 Baptist Care에서 Chaplain 으로서 봉사하였다. 이날은 Baptist Care에서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날이라 더욱 의미가 새로웠다. 수상자는 김경목(Worship, Dancer, 부채춤)과 크로마 하프 단원 (Founder: Kyung Soon Lee/Conductor: Jin Suk Kim/Leader: Ok Kyung Kim/Member: Young Soon Chung /Ki Sook Kim/Duck Im Kim/Hee Ja Kim/Myung Ju Sohn/Sun Yyon Hou/Young Sook Chang/Hye Sook Oh/Soo Na Ho/Mi Kang Heo/Young Hee Kim)이었다. 또한 색소폰 연주에 맞추어 중국무예 춤인 "타이치"를 선보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한편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특별행사로 5월 5일에는 Woy Woy를 방문하여 즐겁게 어버이 날 자축행사를 가졌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ACC 호스피스 공동체와 함께 하여 교민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밝혀나가는 일에 동참하여 감사드립니다.

## 웃음치료와 페르조나 (Persona)

ACC 호스피스는 화창한 날씨와 함께 어머니 날 특별행사로 5월 5일에는 Woy Woy에서 바닷가 걷기 행사를 가졌고, 5월 7일에는 매주 방문하는 Baptist Care에서 어머니 날 카네이션을 콘서트에 참석한 모든 환우들에게 달아드리면서 아름답게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를 마무리 하였다. 특히 이 날은 Baptist Care에서 ACC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감사장은 "죽음 저편의 삶을 이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에 대한 천국의 보증수표"와 같은 의미였다. 연이어 5월 14일 월요 중보기도회는 처음으로 Olympic Park에서 야외기도회를 가지면서 봉사자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김소미 봉사자의 게임준비와 상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봉사였다. 모든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헌신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삶이란 것을 ACC 호스피스의 총회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ACC 호스피스는 바닷가 걷기와 콘서트 때, 웃음치료 활동을 하는데 웃음치료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경험한 사람은 알 것이다. 여기 웃음치료사 이요셉 씨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제가 한번은 어떤 커피 자판기 앞에 가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했더니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장이라고 적어놓는데, 이 주인이 센스가 있더라고요. 고장이라고 적어놓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판기, 오늘 하루 쉽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피식 웃고, 즐거웠어요. 유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쁘고 여유가 없다 보면 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삶을 쉬게 하는 여유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웃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이분이 너무 심한 삶에 어려운 처지를 당했어요.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서게 되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압류 딱지가 붙게 되었고, 월급도 압류되었어요. 울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한 달 받는 월급이 5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돈이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요셉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보라고, 그럼 너는 얼굴 펴라. 웃어라, 마음의 여유를 찾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행복여행과정 중에 이분이 들어오세요. 그분이 하루 웃고, 이를 웃고, 사를 웃고, 거기서 웃음이라는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느냐면,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것이 이것이에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행복여행), 외부적으로 웃는 웃음에 대한 개념을 운동이라고 생각을 바꿔요.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기분 나쁠 때도 운동할 수 있지 않아요. 실제 웃음은 운동이에요. 웃기 시작할 때에 폐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웃음을 배웁니다. 아침에도 웃는 것이지요. 점심에도 웃는 것이예요. 웃을 일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냥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웃는 것입니다. 하루 웃고, 이를, 사를 웃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웃음이 왜 중요하냐면 웃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웃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웃으면 기쁜 감정,

##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즐거운 감정, 행복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파출부 일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이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기 싫었대요. 억지로 했대요. 죽기 싫어서 했던 것인데, 이분의 마인드가 바뀐 것이예요. 파출부를 하기 전에 웃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으로 웃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과 마인드에 변화를 주는 것이지요. 아파트에 있는 집에 평상시 같으면 보지도 않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보고 싶대요. 그랬더니 그 원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있대요. 그러면 “그 인간.” 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웃었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예요. 남편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보~. 나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빚도 많이 갚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는 어느 날 짐을 싣아 나가는데, 편지 봉투가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퍼보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언장이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나?”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을 하는 것이예요. “1년 전에 혹시 기억나? ‘여보~ 나야~’ 라고 웃었던 그 장면”, 그날 남편이 두 아이를 재워놓고, 유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오. 애들아 아빠 용서해다오.’ 유언장을 다 쓰고 마지막 담배를 하나 피우고 떨어지려는 찰나에 못 본 것을 본 것이예요. 아내의 그 환한 미소와 웃음이 그 사람 뇌리에 때리면서 그 순간 생각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떨어지면 이 아이의 웃음이 없어지지.’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부가 열심히 일하지요.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여러분 산더미 같은 근심과 걱정의 산더미에 가시덤불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성냥 불 하나면 충분히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예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작은 미소와 같은 사랑의 불이 행복과 기쁨의 불이 내 삶의 문제를 없애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미소 한번 지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근심의 모든 산더미 같은 것을 날려버리게. 그리고 이렇게 웃어보면 어떠할까요? 좋은 일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한 자아의 웃음은 자신의 페르조나(Persona)를 넘어 설 때 그 웃음이 치료의 진가로 나타난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흔히 자기의 이름, 직업,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이야기한다. 그 내용은 우리의 고유한 개성이기보다는 우리자신을 집단적인 특성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어느 지역사람, 어느 학교출신, 어떤 집안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내, 누구 어머니, 박사님, 회장님, 의원님, 과장님, 등. 이와 같이 한 개인을 포장하고 있는 집단정신의 인위적인 단면을 묶은 페르조나라고 불렀다. 우리가 흔히 ‘체면,’ ‘낫,’ ‘도리,’ ‘본분’ 등의 말로 표현하는 집단적인 행동규범이나 ‘사회적역할’은 페르조나에 해당된다. 페르조나란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탈춤처럼 광대가 노인의 탈을 쓰면 그는 노인의 역할을 하고, 양반의 탈을 쓰면 양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탈을 썼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에서 이 말을 고른 것이다. 진실한 자아의 웃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만듭니다.



위) 제22차 콘서트-색소폰 연주와 함께 타이치(중국무예춤)  
가운데) 제22차 콘서트- 감사장 수상자 김경옥(Worship Dancer)봉사자  
아래) 제22차 콘서트- 감사장 수상자 김옥경(Harp Band Leader) 봉사자



## Laughter Therapy and Persona

May is the month of appreciation for family in Korean culture. On 5th of May, Mother's Day, ACC Hospice organized beach walks in Woy Woy. On the 7th of May, Hospice volunteers visited Baptist Care, the age care centre where volunteers visits every Monday, and we gave each of the patients a carnation to wear during our 22nd Hospice concert. After the concert, Baptist Care gave certificates of appreciation to ACC hospice volunteers. This acknowledgment was the same as "the assurance check of heaven for beautiful Koinonia, which enjoys life beyond death" in this world. On May 14, Monday, the Intercessory Prayer Meeting was held for the first time at the Olympic Park, and it was a wonderful time for fellowship with the volunteers. We were encouraged to be bold witnesses of our Savior Jesus Christ. Jesus, our head of ACC Hospice knows the dedication of all the Hospice volunteers and sees it as very precious. The ACC hospice will provide laughter treatments during our weekly beach walks and concerts. Let me introduce our laughter therapist Mr. Lee's story below.



위) 크로마 하프 연주와 함께 전체 봉사자의 환우  
치료현장  
아래) 환상적인 부채춤 (김경옥 봉사자)

I once went to a coffee machine and tried to get coffee but it was broken. Usually, when it breaks, the person will put up a sign saying 'Faulty' however this one particular owner wrote "A vending machine that that worked hard. It is a day off" I saw it and laughed and really enjoyed seeing that. I then had a realization of the significance of humor in our busy lives. Through laughter, I see a lot of people healed, recovered, and changed. Someone came to me for support as he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saw that living was too hard. This person's husband had gotten into a bad debt and all their possessions and property were seized. This lady was living in Ulsan, and her salary for a month was only 50,000 won. There was no money and the lady was in a very hard situation. Then someone suggested for her to go see a man named Mr. Lee and that she will be able to find peace and start laughing. This lady joined the laughter therapy program run by Mr. Lee then she will laugh one day, then for two days, then for three days and continuously she will laugh as her face brightened.

One of the many questions I get asked a lot is "How can you laugh when there is nothing to laugh about?". Then I will reply by saying "Think of laughing as an exercise. You can not physical exercise every breakfast, lunch and dinner but laughing is a form of exercise you can do. When you laugh, your lungs becomes strong and your blood circulation gets better and you start to feel refreshed.

I laughed one day, I laughed two days and three days, and suddenly my mind changed. Why laughing is important is that when you laugh, you have no negative thoughts at all. Just as I laughed when I was happy, joyful, and joyful, when I laugh intentionally, my feelings and minds change as feelings of joyful feeling, joyful feeling, and happiness begin to rise. This lady made up her mind to laugh throughout her day. Even though she did not have money, she will laugh before entering her work and during her work. I realized that, laughing intentionally changes the mind. I usually go to a house in my apartment and would see my husband smoking cigarette and would call out to him in a demeaning term. But when I started to greet him with a smile, he laughed and his mood changed to one of joy.. I greet my husband by saying  
"Honey ~. It's me."

Then, since that day, the couple worked very hard and repaid a lot of debt, and after a year they moved out. One day when they packed their bags to move, one letter fell out and she began to read out the letter. It was her husband's will. When she asked her husband what this was, her husband said "remember one year ago when you greeted me with "Honey~ its me" with a smile on your face?". Apparently, that day, her husband put the children to

sleep and asked for forgiveness from his wife and children as he was planning to smoke his last cigarette and commit suicide. At the moment when his wife greeted him with a smile, that image stuck with him and encouraged him to continue living.

So everyone, how are we to get rid of something like a thorn bush in the pile of worries. Something as small like a spark of fire can get rid of this pile of worries like a thorn bush. That small spark is a small smile, the small spark of love that causes a fire of happiness and joy to rise up and get rid of life problems. How about smiling today? Let all the piles of anxiety blow away. Good things surely will come your way.

The story above tells us the importance of laughter. The true laughter that comes to our minds rather than the Persona phenomenon, which is our fake smile and laughs professionally, has the effect of healing not only ourselves but others. The laughter of a true self appears as the true value of therapy when it transcends its own Persona. When we introduce ourselves, we often talk about his / her name, occupation, area of origin, family relations, etc. The content is not our own individuality, but our collective character. A local person, a school member, a family member, whose son, whose wife, whose mother, doctor, president, councilor, chief, etc. Karl Jung called an artificial section of collective spirit that envelops an individual in this way as Persona. The collective norms of behavior or 'social role' that we often express in terms of 'face,' 'unfamiliar,' 'What you ought to do' etc. The word "perzone" originally refers to a mask used by actors in ancient Greek plays. Like a mask dancer in Korea, if a clown wears an old man's coat, he plays the role of an elderly man. The laughter of the true self makes the neighbor pleased not only himself.

### History of ACC Hospice

7/5/2018. 22nd Hospice Concert (Dorothy Handerson Lodg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16/4/2018. 21st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NSW)  
 12/3/2018 20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NSW)  
 22/2/2018 19th Hospice Concert (-Special Invitation-(Shalom Center,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1/2/2018 Sent to missionary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Melbourne Hospice (Pastor Soon Hee Lee)  
 23~25/1/2018 1th Hospice Visiting Chaplain Training  
 22/1/2018 18th Hospice Concert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BSW)  
 20/1/2018 "500th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event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18/12/2017 17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NSW)  
 4/12/2017 Award for ACC Volunteer's Activities from the Korean Australian Community Support Incorporation  
 27/11/2017 2nd Cheched Healing Performance (Ainsley Nursing Home, Burwood, NSW)  
 20/11/2017 1st ACC Volunteer Conference (St Philip's Anglican Church, Eastwood, 4:30 pm)  
 (Winners of Certificate of Appreciation from Baptist Care: Keum Kui Lee, Jung Hee Song)  
 20/11/2017 16th Hospice Concert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NSW)  
 30/10/2017 15th Hospice Concert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NSW)  
 23/10/2016 First Cheched Healing Performance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5~29/9/2017 Thir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First Aid Training  
 25/9/2017 "14th Hospice Concert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9/2017 Special guest speaker, Dr. Tae Sik Jung (Clifton Gardens, 1pm)  
 25/8/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Ko Shin University Hospital  
 14/8/2017 13th Hospice Concert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kville)  
 12/8/2017 5th SICA General Meeting and 1th ACC General Assembly  
 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 << ACC 호스피스 알림 >>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환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 ACC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8.5.07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Dorothy Handerson Lodg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8.4.16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Meredith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8.3.12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 2018.2.22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8.1.22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 2018.1.20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 2017.12.18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ylliville)
- 2017.12.4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 2017.11.2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 2017.10.30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지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준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예배: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ummer Hill Nursing Home)
- 2016.9.26 제17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본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 2016.8.20 총회(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ABN: 17 110189 115  
(호주호스피스 협회)설립 인준: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의장): 김장대  
Treasurer(사무총장): 송정희, Secretary(부대표): 성준자, Audit(협동사무총장/감사): 조철호
- 2016.8.3 호주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BN 17 110 189 115) ACNC 및 NSW Faire Trading 비영리단체 등록

###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 특별기도 및 후원 요청

1. 월체어 차량: 암 환우를 모시고 바닷가 걷기 참여하여 재환을 돕고자 합니다.
2. 부역사용 가능한 전운 사무실 임대: 암 환우에게 무료 한국 건강음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헤세드 힐링 전인지유 자원봉사자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모든 봉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헤세드 힐링 전인지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
- \* 미술치료 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미술로 내적치료 봉사하실 분
- \* 음악치료 봉사자: 악기(피아노, 기타 등)로 너싱홈 환우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실 분
- \* 영어통역봉사자: 매주 너싱홈을 방문하여 호스피스 봉사 팀과 타국 환우들을 보살필 수 있는 봉사자
- \* 그 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

### ● 호주 시드니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거리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 대구 동산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를 고집 철벽은 없다. 다만 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 준비물: 도시락, 물
-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 제2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 장소: Uniting Thomas Roseby Lodge, 388 Illawarra Rd, Marricville NSW 2204
- \* 일시: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소식지 ACC 회계자료 (4 / 2018)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통신비	124.35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인쇄홍보비	253.4	
Elhis Kim	1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398.85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관리비	0	
Young Do Byun	50	MEMBERSHIP FEE	식대및 부식비	247.8	
Hyun Sook Jung	10	MEMBERSHIP FEE	경조비	200	
Jung muk Lim	10	MEMBERSHIP FEE	행사및 세미나	137.5	
Yong sook Kim	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156.4	
Esther Park	100	Donation	회계사.변호사	0	
Dong san Hanna	250	Donation	보험료	0	
Jongse Kim	30	MEMBERSHIP FEE	water	0	
Ok Kyung Kim	30	MEMBERSHIP FEE	First aid	0	
Ok Hee Kim	10	MEMBERSHIP FEE	기타	0	
In Jin Han	10	MEMBERSHIP FEE	Total	1518.3	
2 Soon Hee Lee	10	MEMBERSHIP FEE			
Dae Sub Song	30	MEMBERSHIP FEE			
Jung Hee Lee	20	MEMBERSHIP FEE			
In Jin Han	100	Donation			
R	100	Donation			
Soo Jin Choi	120	MEMBERSHIP FEE			
Harp group	50	Harp group			
Moung Ho Lee. Agada	100	Donation			
Myoung Hee Sung	200	Donation			
Eun Ja Song	50	Donation			
Young Hee Kim	100	MEMBERSHIP FEE			
Soon Ja Chae	30	MEMBERSHIP FEE			
GNA Support	100	Donation			
INTEREST PAID	1.09	Westpac 23			
2424468 PYMT CONSULATE	3,110.04	동포재단 Westpac 15			
INTEREST	0.16	Westpac 15			
<b>수입 Total</b>	<b>4871.29</b>				
<b>*SICA Nab</b>					
sydneylightandsalt	300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주요 활동 (Scope of ACC Activities)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데에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 홍보활동
  - ACC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감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i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and Creation Medicine Education
  -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Sydney Hospice."
  -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 발 행 처: ACC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mailto:australianhospice@gmail.com)
- or [sydneyhospice@gmail.com](mailto: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http://www.australianhospice.com.au) (Eng) / [www.sydneyhospice.com.au](http://www.sydneyhospice.com.au) (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8년 5월 28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